



국어 영역(B형)

1. ④	2. ④	3. ②	4. ②	5. ⑤
6. ④	7. ②	8. ⑤	9. ④	10. ①
11. ③	12. ③	13. ③	14. ⑤	15. ⑤
16. ④	17. ⑤	18. ④	19. ①	20. ③
21. ④	22. ④	23. ③	24. ④	25. ②
26. ③	27. ③	28. ②	29. ④	30. ①
31. ②	32. ④	33. ④	34. ③	35. ③
36. ⑤	37. ④	38. ②	39. ④	40. ③
41. ②	42. ④	43. ②	44. ⑤	45. ③

법

1. 토의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이해

정답 ④

‘이 교수’의 첫 번째 대화 내용 중 “얼마 전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가족 외식권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요”라는 부분을 통해, ‘이 교수’가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이를 토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소극적인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고 볼 만한 부분은 찾을 수 없으므로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 토의에서 사회자가 수행하는 역할 이해

정답 ④

토의에서 토의 참여자들 간에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고 볼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으므로, ‘사회자’가 의견 충돌로 인한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는 진술 또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④는 토의에서 ‘사회자’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로 보기 어렵다.

① ‘사회자’가 첫 번째 대화에서 “먼저, 김 대표님께서 소비자 분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부분을 통해, ‘사회자’는 참여자의 발언 순서를 지정해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사회자’가 첫 번째 대화에서 “최근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피해 입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 시민 단체 대표 김○○님과 소비자정책연구원의 이△△교수님을 모시고 소셜커머스 이용에 따른 피해와 그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한 부분을 통해, 토의의 배경과 토의의 주제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사회자’의 두 번째 대화 내용 중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와 피해를 보상하는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 말씀이시군요.”라고 한 부분과, 네 번째 대화 내용 중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추진되어야 하고 아울러 현행 법규를 토대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

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라고 말한 내용을 통해, ‘사회자’가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정리해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사회자’의 세 번째 대화 내용 중 “개인 정보 유출 문제는 차후에 따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앞서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3. 토의 내용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②

[A]에서 ‘김 대표’는 “소비자들이 소셜커머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를 조사한 자료들에 따르면, 업체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 부족으로 불편함을 느낀 소비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조사한 자료들’의 출처와 ‘업체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 부족으로 불편함을 느낀 소비자의 비율’의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아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②는 적절하게 평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4. 대화자들의 말하기 전략 파악

정답 ②

대화에서 ‘민규’가 ‘경아’에게 “네가 좋아하는 김○○ 선생님도 참석하실 건데.”라고 말한 것은 ㉠(화자)의 측면에서 화자의 권위를 드러내려는 의도로 볼 수 없고, ㉢(청자)의 측면에서 청자의 관심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설득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① ‘민규’가 이번이 ‘다섯 번째 참여’라는 사실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토론회에 대해 ‘민규’가 경험이 많다는 것을 말해 주므로, 이는 ㉠(화자)의 측면에서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민규’가 세 번째 대화에서 영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 보면 ‘위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화자(㉠)나 청자(㉢)의 측면이 아닌 ㉡(메시지)의 측면에서 메시지의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5. 대화의 표지에 대한 이해

정답 ⑤

㉠의 ‘그건 그렇고’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인 ‘그럼 영화 토론 같이 하기로 한 거다.’를 통해 볼 때, 맞장구를 치면서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는 표지라기보다는 부수적인 화제에서 중심 화제로 화제를 전환하기 위한 표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⑤는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다.

② ㉡ 뒤에 이어지는 ‘난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아.’라는 내용을 통해 ㉡은 거절을 위한 대화 표지임을 알 수 있다.

④ ㉢은 영화 토론 동아리라는 화제에서 방학 동안의 학습에 대한 화제로 전환하는 표지라고 볼 수 있다.

6.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④

<보기 1>의 (가)를 보자. 교육부는 진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충분히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아 진로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개인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진로 교육은 아직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다)에서는 고등학교에 와서 진로 교육을 받아 보았지만 프로그램이 단조롭고 자신의 관심과 동떨어진 활동들도 많아서 별로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는 학생의 인터뷰 내용과, 다양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사 연수, 교육청이 주도하는 학교, 지역 사회, 기업 등과 함께 협력하여 실질적인 진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수의 인터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다)에서 학생들이 흥미 위주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이끌어 낼 수 없으므로 ④는 적절한 활용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7. 조건에 맞는 표현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②

<보기>에서는 ‘진로 교육의 중요성이 드러나도록 할 것.’과 ‘질문을 하는 방식과 예를 드는 방식을 활용할 것.’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②이다. ②에서는 직업과 직업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진로 교육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진로 교육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처럼 선진국들이 ~ 무엇 때문이겠는가?’라며 질문 방식을 활용하였고, 선진국의 예로 영국과 독일을 들고 있으므로 예를 드는 방식도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③ 진로 교육의 중요성은 드러나고 있지만, 질문을 하는 방식과 예를 드는 방식은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④, ⑤ 질문을 하는 방식은 활용하였지만 진로 교육의 중요성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8. 글쓰기 계획에 따른 반영 여부 확인

정답 ⑤

<보기>에서는 <보고서>를 쓸 때 ‘ㄱ. 좋았던 점과 함께 아쉬웠던 점을 밝힌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 좋았던 점은 제시되었지만 아쉬웠던 점을 밝히는 내용은 없으므로, ㄱ은 <보고서>에 반영된 항목이라고 할 수 없다.

① 첫째 문단의 ‘우리 생물탐구반은 방학을 맞아 ~ 자연사 박물관을 견학하기로 했다.’ 부분에 견학의 목적이 제시되었다.

② 첫째 문단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 △△ 자연사 박물관은 우

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자연사 박물관으로 ~ 견학 장소로 선택하게 되었다.’는 부분에서 장소 선정의 경위를 알 수 있다.

③ 둘째 문단은 ‘제일 먼저 간 곳은 ~’, ‘다음으로 우리가 간 곳은 ~’, ‘3층에 있는 ~’, ‘끝으로 지하에 있는 ~’이라며 이동 경로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고 있다.

④ 둘째 문단의 ‘이곳에서 고생대 말인 3억 년 전만 하더라도 ~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통해 남세균류가 지구 최초의 생명체 증거라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통해 <보고서>에 견학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정보가 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9. 글쓰기 전략과 구체화 방안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주어진 ‘김누리 학생의 수필’은, 설 전날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갔다가 겪은 평범한 사건을 아저씨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고, 배려 받지 못한 아기를 통해 행복이라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글이다.

넷째 문단에서 글쓴이는 ‘우선은 도시 공공시설에 아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실을,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확대해야겠지만’이라며 성찰한 내용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예상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으므로 ④는 글쓰기 전략에 대한 구체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첫째, 둘째 문단에서의 아저씨의 동작에 대한 묘사, 그리고 둘째 문단에서의 현재형 종결 표현(‘-나다’) 등을 통해 현장감이 효과적으로 느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둘째 문단에서 ‘마치 과도타기를 하는 것처럼’, 넷째 문단에서 ‘계절이 돌아오듯’ 등과 같은 비유법이 사용되었다.

10. 고쳐 쓰기 방안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①

㉠에는 아저씨가 아기를 데리고 화장실로 갈 것이라는 학생의 예상과 아저씨가 그 자리에서 기저귀를 갈기 시작했다는 내용을 이어 주는 접속어가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비록 사실은 그러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관용구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다고 이를 ‘한편’으로 고쳐도 적절하지 않다(①). ‘한편’은 ‘어떤 일에 대하여, 앞에서 말한 측면과 다른 측면을 말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이다. ㉠은 문장의 접속 관계를 고려할 때,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또는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끌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런데’ 정도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② 현재 상태로는 ‘고약한 냄새(가)’에 필요한 서술어가 생략되어 문법상 어긋난 표현이므로, ‘고약한 냄새(가)’에 필요한 서술어 ‘나고’를 첨가하는 방안은 적절하다.

③ 한글 맞춤법 제25항에 따르면,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㉔은 부사 ‘곰곰’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곰곰이’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㉔ 앞의 내용이 논리적 모순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㉔에는 ‘케변’이 아닌 ‘역설’이 어울린다. 케변은 ‘상대편을 이론으로 이기기 위하여 상대방의 사고(思考)를 혼란시키거나 감정을 격앙시켜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 대는 논법’이다.

법

11. 표준 발음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정답 ③

<보기 1>의 제6항 [붙임]에 보면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기 2>의 ㉔‘짜’는 어간인 ‘꼬-’에 어미 ‘-아’가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㉔‘짜’는 긴소리로 발음해야 한다. 그런데 ③에서는 짧게 발음될 것으로 탐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② 제6항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토대로 탐구한 내용이다.
④ 제7항에서 짧게 발음되는 경우로 제시된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⑤ 제7항에서 짧게 발음되는 경우로 제시된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12. 문장의 중의성 해소 방안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③

㉔의 ‘철호가 오늘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라는 문장은 부정어가 어디를 부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중의성을 가진다. 이 문장의 중의성을 ‘의미 조건’(‘철호가 도서관에 간 것은 오늘이 아니라 다른 날임.’)에 맞게 해소하려면 ‘오늘’에 보조사 ‘은’을 붙여 ‘철호가 오늘은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로 수정해야 한다. 그런데 ③은 ‘철호가 오늘 도서관에는 가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의미 조건>에 따라 중의성을 해소한 문장으로 보기 어렵다.

- ② ‘아름다운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다.’라는 중의문을 ‘아름다운’ 다음에 쉼표를 찍어 ‘아름다운’이 ‘그녀의 손’을 수식하게 함으로써 ‘그녀’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녀의 손이 아름다움.’의 의미로 변화했다. 따라서 ②는 ‘의미 조건’에 맞게 중의성을 해소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13. 두음 법칙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정답 ③

<보기>의 ‘선생님’ 설명에 따르면, 두음 법칙은 주로 한자어의 첫 음절에 있는 어두음에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두음 법칙을 적용해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㉔을 보자. ‘규율(規律)’과 ‘백분율(百分率)’, ‘보급률(普及率)’과 ‘시청률(視聴率)’이 올바른 표기인데, 이때 한자음 ‘률’이 모음이거나 ‘ㄴ’ 받침 뒤에 위치하는 경우(‘규율(規律)’, ‘백분율(百分率)’에는 자음 뒤에 위치하는 경우(‘보급률(普及率)’, ‘시청률(視聴率)’))과 달리 ‘율’로 적고 있다. 따라서 ③은 적절하지 않다.

14. 사전의 이해 및 활용

정답 ⑤

<보기>를 통해 볼 때, ‘이르다³’의 의미는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빠르거나 앞서다.’이다. 그런데 ⑤에서 ‘이르다³’의 용례로 사용된 ‘그는 항상 나보다 빨리 결승점에 이르렀다.’의 ‘이르다’는 ‘이르다¹’의 ㉔‘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⑤는 ‘이르다’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이르다¹’의 경우 어간에 어미 ‘-어’가 붙으면 ‘이르러’로 활용되는 반면, ‘이르다²’의 경우는 어간에 어미 ‘-어’가 붙으면 ‘일러’로 활용되어 그 활용 형태가 다를 수 있다. 참고로, ‘이르다’은 러불규칙 용언에 해당하고, ‘이르다²’는 르불규칙 용언에 해당한다.
④ ‘이르다¹’ ㉔은 【…에】라는 필수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인 반면, ‘이르다²’ ㉔은 【…에게 …을】이라는 필수 부사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므로, 이들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15. 높임 표현에 대한 이해

정답 ⑤

㉔을 보면 화자인 장모는 사위를 높여 말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아주 낮춰 말하기가 어색하므로 예사 낮춤의 하계체 명령형 어미를 통해 사위를 낮추어 말하고 있다. 그런데 ⑤에서는 ㉔에서 화자인 장모가 두루 높임의 하계체 명령형 어미를 통해 사위를 높여 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화자인 손자는 청자인 할아버지를 고려하여 특수 어휘 ‘잡수시다’를 사용하였지만, 청자인 할아버지를 고려하여 말한 주체인 고모는 할아버지보다 낮은 사람임을 고려하여 ‘하였습니다’와 같이 높이지 않았다. 이는 문장의 주체가 화자보다는 높지만 청자보다는 낮아 그 주체를 높이지 못하는 어법인 압존법에 해당한다.

16. 중세 문법의 부사격 조사에 대한 이해

정답 ④

<보기 1>에 따르면, 선행 체언의 끝 음절 모음이 ‘이, ㅣ’인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 ‘예’를 사용해야 한다. <보기 2>의 ‘빅+㉔’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빅’은 선행 체언의 끝 음절 모음이 ‘ㅣ’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㉔에는 부사격 조사 ‘예’가 와야 한다.

그리고 ‘굴형’은 선행 체언의 끝 음절 모음이 ‘어’로 음성 모

음이므로 부사격 조사로는 ‘에’가 와야 한다. 즉 ㉠에 ‘에’가 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 ㉡에 알맞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④이다.

문

[17~20] 지문 해제

인간 행위를 연구하는 방법론인 ‘이해’와 ‘설명’

인간 행위를 연구하는 방법론인 ‘이해’와 ‘설명’을 다루고 있는 글이다. ‘이해’는 주로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루는 ‘정신과학’의 중요한 방법론이 되었던 반면, ‘설명’은 자연적 대상을 다루는 ‘자연과학’의 중요한 방법론이 되어 왔다. 필자는 ‘인간의 행위’를 ‘이해’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지, ‘설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후, 인간의 행위를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이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확립한 딜타이의 ‘객관적 정신’에 대해 설명하고, 이 주장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행위를 ‘설명’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소개한 후, 인간의 행위를 연구하는 방법론으로서의 ‘이해’와 ‘설명’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7.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

정답 ⑤

지문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이해’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설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대립하는 두 방법론의 관점과 그 한계 또는 문제점을 소개한 후, 인간의 행위를 연구하는 방법론으로서의 ‘이해’와 ‘설명’은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립하는 두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것에 대한 절충적인 관점을 제안하고 있다.’는 ⑤가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18. 세부 정보의 구체적 이해 및 확인

정답 ④

둘째 문단에서, 인간의 행위를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학자들은 같은 인간이라는 삶의 공통성을 기반으로 타인의 체험을 자신의 체험처럼 느끼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방법론은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딜타이가 ‘객관적 정신’을 내세웠고, ‘객관적 정신’은 개별적인 인간 정신의 상호 작용에 의해 산출되는 집단정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이해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객관적 정신’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공통의 기반이 된다고 이해한 ④는 적절한 내용이다.

19. 내용 파악을 통한 자료의 추론적 이해

정답 ①

<보기>의 (가)에서 ‘콜링우드’는 당시에 황제가 치했던 상황이 마치 나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황제가 결단을 내렸던 그 과정을 자신의 마음속에 재현하면서 음미해야 진정한 의미의 역사적 지식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이는 둘째 문단에서, 인간의 행위를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학자들이 제시한 ‘같은 인간이라는 삶의 공통성을 기반으로 타인의 체험을 자신의 체험처럼 느끼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그런데 역사적 상황을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현실에서 재현하는 것과 황제가 결단을 내렸던 그 과정을 자신의 마음속에 재현하면서 음미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①은 적절하게 추론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둘째 문단을 통해 추론 가능한 내용이다.

③, ④, ⑤ 셋째 문단에서 제시한, 인과적 설명으로 인간의 행위를 비롯한 모든 것에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의 관점, 즉 ‘인간의 행위를 어떤 보편 법칙 속에 포섭되는 하나의 사례로 보고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행위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보다 그런 의도가 왜 생겨났는가를 묻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했다.’는 내용과 관련지어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20. 내용 이해에 따른 상황 판단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①은 인간의 행위를 ‘설명’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의 이유는 ㉠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보기>의 ㉠은 ‘인간의 정신세계에 속하는 의도는 자연처럼 관찰이나 실험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은 ‘인간의 정신세계는 어떤 법칙을 따르기보다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의 의도를 모든 상황에서 모두 이해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 ㉡이 짝을 이룬 ③이 답이다.

사 회

[21~24] 지문 해제

인간자본 이론에 대한 이해

게리 베커에 의해 체계화된 인간자본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인간자본 이론은 투자에 의해 인간에게 형성되고 체화된 지식 및 기능 등의 생산적인 힘을 ‘인간자본’이라 규정하고,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을 통해 소득 격차를 설명한다. 베커는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에 따라 소득 격차를 엘리트주의적 접근 방법과 평등주의적 접근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전자는 투자 기회 측면에서의 공급 조건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만 수요 조건, 즉 동일한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면의 차이 때문에 소득 격차가 발생한다고 본다. 그러나 후자는 모든

사람의 타고난 능력은 비슷하므로 같은 양의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비슷하다고 본다. 따라서 수요 조건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공급 조건의 차이, 즉 투자 기회에서의 차이에 의해 소득 격차가 야기된다고 본다. 이러한 베커의 인간자본 이론은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데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지만 사회·문화적 요인을 완벽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교육의 의미와 효과를 과대평가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1.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이해

정답 ④

첫째 문단에서, 인간자본 이론에서는 ‘투자에 의해 인간에게 형성되고 체화된 지식 및 기능 등의 생산적인 힘을 인간자본이라 규정하고 인간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출, 그로 인해 포기된 소득 등을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파악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④의 ‘인간자본 이론에서는 인간자본 형성을 위해 포기한 소득을 배제하고 투자를 정의한다.’라는 설명은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22. 내용 이해를 통한 구체적 자료에의 적용

정답 ④

셋째 문단의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각 개인은 한계수익이 한계비용을 상회하는 한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 즉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까지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를 한다. 이에 근거하여 <보기>의 (나)를 보면 K_1 은 ‘다회’의 수요곡선 D_1 과 공급곡선 S_1 가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OK_1 은 ‘라회’의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량이 아니라 ‘다회’의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량이다. 따라서 ④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① 셋째 문단에서 인간자본 투자의 총수익은 수요곡선의 아래에 있는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표시된다고 하였고, (가)에서 ‘가회’는 S_1 의 공급곡선과 D_1 의 수요곡선을 가지기 때문에 K_1 까지 투자를 하므로, $OAMK_1$ 은 ‘가회’의 인간자본 투자에 대한 총수익이다.
- ② 셋째 문단에서 인간자본 투자의 총비용은 공급곡선 아래부분의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표시된다고 하였고, (가)에서 ‘나회’는 S_2 의 공급곡선과 D_1 의 수요곡선을 가지기 때문에 K_2 까지 투자를 하므로, $OCNK_2$ 는 ‘나회’의 인간자본 투자에 대한 총비용이다.
- ③ 셋째 문단에서 인간자본 투자의 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인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나)에서 ‘다회’의 총수익은 $OBMK_1$ 이고, 총비용은 $OCMK_1$ 이므로 ‘다회’의 인간자본 투자에 대한 순이익은 $OBMK_1$ 에서 $OCMK_1$ 을 뺀 차액인 삼각형 BCM 의 면적이다.
- ⑤ (나)에서 ‘다회’의 순이익은 총수익 $OBMK_1$ 에서 총비용 $OCMK_1$ 을 뺀 BCM 이고, ‘라회’의 순이익은 총수익 $OANK_2$ 에서 총비용 $OCNK_2$ 을 뺀 ACN 이므로, ACN 에서 BCM 을

뺀 $ABMN$ 이 ‘다회’와 ‘라회’의 소득 격차이다.

23. 자료에 대한 해석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평등주의적 접근 방법에 따르면, 수요 조건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공급 조건의 차이, 즉 투자 기회에서의 차이에 의해 소득 격차가 야기된다. 따라서 이 시각은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노동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축을 도출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다.

<보기>의 (가)를 보자. ‘가회’와 ‘나회’가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계비용(투자 기회의 차이를 반영한 값)의 차이 때문이다. 그런데 평등주의적 접근 방법에서는 이러한 소득 격차를 교육 기회의 보장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③은 적절한 해석이다.

24. 외적 자료를 근거로 한 비판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보기>에 제시된 인도의 경우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계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고 같은 인간자본을 획득하였다고 할지라도 하위 계급 노동자는 상위 계급의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워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다. 그런데 ㉠‘베커로 대표되는 인간자본 이론’에서는 저소득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노동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하여 소득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보기>를 근거로 할 때 ㉠에 대해 ‘인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사회 구조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술

[25~27] 지문 해제

열역학 법칙에 위배되는 영구 기관의 작동 원리

영구 기관의 개념을 소개하고, 17세기에 고안된 영구 기관이 실패한 이유와, 주변에 있는 공기의 열을 이용하여 달리는 가상의 자동차의 영구적 작동이 불가능한 이유를 열역학 제1법칙과 열역학 제2법칙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영구 기관’이란 외부에서 어떤 힘을 가하거나 연료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계속 움직이는 가상의 장치를 말한다. 16세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영구 기관이 고안되었는데 그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림 1>의 17세기에 고안된 영구 기관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에너지는 그 형태를 바꾸는 경우는 있어도 새로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설명한 법칙이 바로 ‘열역학 제1법칙’이다. <그림 2>와 같이 주변에 있는 공기의 열을 이용하여 달리는 가상의 자동차, 즉 스스로의 힘으로 주변 환

경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영구 기관의 작동도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며,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설명하는 법칙이 ‘열역학 제2법칙’이다.

25. 내용 이해를 통한 글의 전개 방식 파악 정답 ②

지문에서는 영구 기관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림 1>과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영구 기관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열역학 제1법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림 2>와 같이 스스로의 힘으로 주변 환경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영구 기관의 작동이 불가능한 이유를 열역학 제2법칙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구 기관을 열역학 법칙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는 ②이다.

26.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이해 및 확인 정답 ③

㉠<그림 1>의 장치’는 처음 고안한 사람의 기대와는 달리 결국 멈추었는데, 그 이유는 처음에 원반을 돌린 힘은 회전축의 마찰과 쇠구슬이 구르면서 생기는 마찰 등으로 인해 열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 내용에 근거할 때 ㉠은 적절한 설명이다.

그리고 둘째 문단의 ‘그리고 장치 안에서 마찰로 인해 손실된 에너지를 보충할 새로운 에너지는 생성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쇠구슬의 무게로 인해 회전축에 걸린 힘이 모두 원반의 왼쪽에 있는 쇠구슬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볼 때, ‘회전축을 중심으로 원반의 오른쪽에 걸린 힘과 원반의 왼쪽에 걸린 힘은 상쇄된다.’는 ㉡도 적절한 내용이다.

따라서 ㉠과 ㉡가 짝을 이룬 ③이 정답이다.

㉢ 에너지는 그 형태를 바꾸는 경우는 있어도 새로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열역학 제1법칙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 둘째 문단의 ‘그리고 장치 안에서 마찰로 인해 손실된 에너지를 보충할 새로운 에너지는 생성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쇠구슬의 무게로 인해 회전축에 걸린 힘이 모두 원반의 왼쪽에 있는 쇠구슬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통해 적절하지 않은 설명임을 알 수 있다.

27. 내용의 구체적 이해를 통한 추론 정답 ③

마지막 문단에서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며,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이것이 열역학 제2법칙이다. 그런데 이 법칙에 따르면 증기를 식혀 액체로 만들려면 주변 공기의 온도가 증기의 온도보다 낮아야 한다. ㉢ 그런데 <그림 2>의 자동차는 주위에

있는 20℃의 공기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과 같이 ‘이 증기를 15℃ 이하로 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술

[28~30] 지문 해제

프리드리히의 풍경화가 가지는 특징과 의의

낭만주의의 특징과 경향을 설명하고, 이러한 낭만주의 경향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작가 프리드리히의 풍경화가 가지는 특징과 의의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낭만주의에서는 예술이 그 독특한 힘으로 이성적, 의식적, 논리적 접근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보다 심오하고 본질적인 진리나 실재를 우리에게 드러내 준다고 생각하여 과학보다 예술이 한 단계 높은 진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낭만주의 작품에는 유한한 현 상태로부터 벗어나 무한한 것, 영원한 것을 지향하는 인간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낭만주의 경향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작가가 프리드리히라며, 그의 견해와 풍경화의 특징, 그리고 그의 풍경화가 가지는 특징과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28. 글의 문단 내용에 대한 이해 정답 ②

(나)를 보자. (나)에서는 프리드리히가 자연을 신의 체현으로, 또 예술을 신과 인간의 매개자로 여겨 자연을 통해 신을 만날 수 있으며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그림 속에 담는 것을 신적인 창작이 구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자연과 예술에 관한 그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의 작품 세계가 변모한 과정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9. 자료에 대한 반응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다)에서는 “자연의 규모와 그 힘이 인간이 측량하고 지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때 인간은 자연을 대면하여 고통과 쾌감의 상호 모순된 정서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정서를 칸트는 ‘숭고’라고 이름 붙였다.”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칸트의 입장에서 보면, <보기>의 ‘안개 바다’는 인간에게 한계를 자각하게 만들어 쾌감을 억제하는 고통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숭고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라고 볼 수 없다.

㉠ (나)에서 ‘그는 풍경화를 통해 자연 속에 내재된 무한함, 즉 신적인 것을 표현해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의 관계를 보여 주고자 했다.’라고 하였으므로, <보기>에 제시된 작품에 그려져 있는 ‘안개 바다’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과 대조되는 영원성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라)에서 <보기>의 작품을 설명하며, 이 작품에서 자연과 마주 대하고 있는 인물은 명암의 대조를 통해 그 존재가 강

하게 부각되면서 화면에 긴장감을 자아낸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 ‘프리드리히는 자연을 신의 체현으로, 또 예술을 신과 인간의 매개자로 여겼다.’라고 한 내용을 토대로 보일 수 있는 반응이다.

⑤ (라)의 ‘감상자는 이 인물을 통해 그림 속으로 끌려 들어가 그와 하나가 되어 자연을 관조하게 되며, 이러한 관조를 통해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는 낭만주의적 감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다.

30. 세부 내용의 이해를 통한 추론

정답 ①

㉠에서는 낭만주의가 예술을 진리와의 연관 속에서 바라보는 특징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의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낭만주의에서는 예술이 그 독특한 힘으로 이성적, 의식적, 논리적 접근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보다 심오하고 본질적인 진리나 실재를 우리에게 드러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보다 예술이 한 단계 높은 진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하여 ‘낭만주의에서는 인간이 예술을 통해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는 ㉠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31~33] 작품 해제

(가) 신동엽, 「향아」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통해 참다운 인간성의 회복을 추구하는 문명 비판적 성격의 작품이다. 제1연에서 화자는 아직 문명에 찌들지 않은 순수한 존재인 시적 대상 ‘향’에게 ‘오래지 않은 옛날’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제2연에서는 ‘오래지 않은 옛날’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3연에서는 옛날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그리고 제4연에서는 ‘허울, 기생충의 생리, 허식’과 같은 부정적 현실에 대한 거부와 순수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 제5연에서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 남아 있는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결국 이 시는 화자가 ‘향아’라는 시적 대상에게 청유형으로 진술하는 구조를 통해, 소박하고 맑은 공동체적 세계로의 회귀를 소망하고 있는 작품이다.

(나) 김기택, 「멸치」

생명의 소중함과 의미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화자는 멸치가 딱딱하게 굳어지기 전까지 ‘부드러운 물결’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물결’이 ‘그물’과 ‘햇빛의 곳곳한 직선’에 의해 생명력을 빼앗겨 딱딱하게 굳어서는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젓가락 끝에 딱딱하게 잡히는 멸치에는 아직도 바다가 있고, 지느러미가 있으며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며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며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화자는 ‘딱딱한 멸치’의 생명력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는 멸치에 있는 ‘작은 무늬’에 주목해 멸치의 생명력을 뺏은 것들에 대한 비판 의식과 함께 본래의 생명력에 대한 회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3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 ②

(가)에서는 ‘가자’, ‘돌아가자’, ‘그만 내자’ 등에서처럼 청유형 종결 어미 ‘-자’를 사용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소망의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떼어 냈던 것이다’, ‘잃었을 것이다’, ‘굳어졌던 것이다’, ‘담겨졌던 것이다’, ‘찢었던 것이다’ 등에서처럼 ‘것이다’라는 종결 어미를 반복 사용하여 생명력을 앗아 가는 세계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 의식과 함께 본래의 생명력에 대한 회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종결 표현으로 시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②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하다.

32.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는, (가)의 경우 신체 또는 인간들의 관계와 결합된 공간의 표상들은 ‘우리들의 고향’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 내용에 해당하는 예를 (가)에서 찾으라고 하고 있다. (가)에서 ④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가자’, ‘돌아가자’라는 서술어를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회귀를 희망하는 공간의 표상들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④는 ‘그만 내자’라고 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④에 대해 거부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소망하는 ‘우리들의 고향’의 의미라고 할 수 없다.

33. 작품 속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④

(나)에서 화자는 지금 젓가락 끝에 딱딱하게 잡히는 멸치에는 바다가 있고,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으며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며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며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반찬에 지나지 않는 멸치 볶음에서 멸치가 본래부터 지녔던 생명력을 환기하는 것으로, 화자의 생명력 회복에 대한 소망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④에서는 ‘이 작은 무늬’가 멸치가 생명력을 자각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멸치를 시적 화자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④는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없다.

[34~38] 작품 해제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산업화가 진행되던 1970년대 동진강 하구를 배경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다양한 시점의 변화를 통해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실향민인 아버지는 도요새 무리를 보며 고향을 그리워한다. 도요새는 북을 향해 날아갈 수 있지만 분단으로 인해 아버지는 이북에 두고 온 고향에 갈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남북 분단의 현실에 대한 아픔과 실향민의 슬픔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시국 사건에 연루되어 학교에서 제적된 후 낙향한 ‘병국’은, 철새 도래지인 동진강 하구에 언제부터인가 도요새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관심을 갖고 환경오염의 주범을 밝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다 철새의 죽음에 동생 ‘병식’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재수생인 ‘병식’은 친구인 죽제비와 함께 도요새를 독살해서 박제사에게 넘겨 용돈 벌이를 한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 이는 생명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병식’의 탐욕이 그의 삶을 병들게 한 때문이다.

34. 내용에 대한 구체적 이해

정답 ③

마지막 문단의 ‘아버지는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 ~ 퇴직금을 받았으나 그 돈으로 구멍을 막기에는 모자랐다. 나머지 돈은 엄마가 어떻게 융통한 모양이었다.’, ‘역시 엄마는 수완가였다. 엄마는 우리 식구를 거리에 나왔게 하지 않았다. 물론 끼니를 거르게 만들지도 않았다. 엄마의 능력으로 우리 식구는 그런대로 옛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통해 ‘엄마’가 ‘아버지’의 퇴직금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아버지는 늘 정직과 청렴결백을 생활신조로 삼았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② 아버지의 대화 내용 중 “그러나 난 공산주의가 원래 세, 생리에 맞지 않았어. ~ 그들은 매사에 너무 과격했거든. ~ 사람이란 다 개성이 다르므로 해서 가, 각자의 꿈과 소망이 다르듯, 그런 자유와 창의력을 나는 존중하지.”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첫째 문단과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통해 아버지가 학교의 공금을 빼내 써서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언젠가 아버지는, 고향을 잃을 때부터 가슴에 큰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향을 잃고 살기는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35. 자료를 활용한 작품 이해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A]의 “아니야. 아버지는 정말 전쟁의 희생자야. 통일을 못 이루는 이 분단의 현실이 아버지의 모든 희망을 빼앗아 갔어. 요컨대 아버지 삶의 근간을 끊어 버린 거야.”라는 ‘형’의 말을

통해, ‘형’은 분단이 아버지의 삶의 근간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생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이 지구상에 공존하는 한 무력의 길 이외는 통일이 힘들다고 말했어. 나도 동감이야.”라는 ‘나’의 말은 통일이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말이지 무력으로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36. 서술 내용의 기능 이해

정답 ⑤

㉠에서는 아버지가 강원도 통천군 두백리가 고향이고, 배열 척과 큰 어장까지 가진 재력가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해방 전에는 일본서 전문학교까지 다녔고, 해방 후에는 서울서 대학에 적을 두었다가 전쟁이 나던 해 약혼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올라갔다가 징집을 당해 인민군 소위로 참전했다는 것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37. 다른 장르에의 적용과 그에 대한 적절성 평가

정답 ④

<보기>의 S# 93은 원작 [B]의 ‘어느 날 아버지는 인사불성으로 술에 취해 돌아왔다. ~ 아버지는 우리의 방으로 건너와 형과 나를 잡고 투정했다. 엄마는 그 돈으로 깨어지려는 계를 겨우 수습한 모양이었다.’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 93은 ‘아버지’가 ‘형과 나’를 붙잡고 투정을 하는 원작과는 달리, ‘엄마’까지 등장시키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아버지’는 가족 모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② [B]는 ‘그러나 엄마는 파산, 집단 자살, 그것도 아니라면 나 혼자 감옥에 가거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극단적인 위협조차 사양치 않았다. 그렇게 협박과 울음을 섞어 아버지를 설득시킨 것이다.’와 같이 서술 형태인 반면, S# 91은 ‘아버지’와 ‘엄마’가 직접 대화하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S# 91은 원작과 달리 ‘아버지’와 ‘엄마’의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⑤ S# 94에서는 원작 [B]에서 ‘약속한 보름’이 지난 후 ‘아버지’가 ‘매일’ 자살 타령을 읊조렸다는 부분을, 원작과 달리 ‘보름 후, 안방’이라는 하나의 시공간을 설정하여 ‘아버지’와 ‘엄마’의 갈등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8. 지문의 단어를 활용한 다른 표현의 적절성

정답 ②

문제에서는 ㉡ ‘아니, 전에도 경제권은 엄마가 쥐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아버지’를 주어로 하면서 지문의 단어를 활용한 표현으로 바꾸라고 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②이다. ②에서는, ‘엄마’가 경제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경제권 행사에 직접적인 권한이 없음을 ‘깍대기’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39~42] 작품 해제

김시습,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이 작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인 「금오신화」를 이루는 다섯 편 중 하나로, 꿈속의 이야기가 작품의 핵심 내용이 되는 몽유록계 소설이다. 제목인 ‘남염부주지’는 주인공 박생이 ‘남염부주’에 다녀온 이야기라는 뜻이고, ‘남염부주’는 남쪽에 있는 지옥을 말한다. 이 작품의 대부분은 박생과 염왕의 문답식 토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작가는 이 문답 과정에서 자신의 종교관, 국가관, 정치관을 밝히고, 사상들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작가의 깊은 사상을 집약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어느 날 박생은 한밤중에 주역을 읽다가 잠이 들어 꿈속에서 염부주로 가서 염왕을 만나 사상적인 담론을 벌인다. 다방면에 걸친 문답을 통해 염왕과 의견 일치에 이름으로써 박생은 자신의 지식이 타당한 것임을 재확인하고 염왕은 박생의 능력을 인정하여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조서를 내리고는 세상에 잠시 다녀오라고 한다. 꿈에서 깬 박생은 집안일을 정리하고 지내다가 얼마 뒤 병이 들어 조용히 세상을 떠난다.

39. 작품의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 ④]

이 글은 학문의 성취 수준은 높았으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늘 불쾌한 마음을 품고 있던 ‘박생’이 꿈에서 염부주의 임금인 ‘염왕’을 만나 나누는 대화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를 토대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④는 적절한 내용이다.

40.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이해

[정답 ③]

제시된 부분의 ‘그 바람에 박생도 땅에 넘어졌는데 놀라서 깨어 보니 한갓 꿈이었다. ~ 박생은 한참 동안 감격스러우면서도 의아하게 여기다가 장차 죽게 될 것을 깨닫고 날마다 집안일을 정리하는 데 몰두하였다.’라는 내용을 통해, ‘박생’은 꿈에서 깬 후 자신이 죽을 것을 깨닫고 신변을 정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③은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41.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②]

<보기>에서는 ‘남염부주지’의 작가 김시습이 살았던 당대의 현실은 인제가 제대로 등용되지 않아 백성을 위하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라고 말하며, 김시습은 ‘염왕’과 ‘박생’을 통해 그의 사상과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글에서 ‘박생’은 학문의 성취 수준은 높았으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늘 불쾌한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염왕’이 ‘박

생’에게 ‘과인이 들으니 그대는 정직하고 뜻이 굳세어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고 하니 진실로 달인(達人)이라 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런데도 그 뜻을 당세에 한 번도 펼쳐 보지 못하였으니 마치 형산의 옥이 티끌 가득한 별판에 버려지고 밝은 달이 깊은 못에 잠긴 것과도 같소. 훌륭한 장인을 만나지 못하면 누가 지극한 보물임을 알아주겠소?’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때의 ‘훌륭한 장인’은, 풍속을 교정하고 백성을 교화해 정치의正道(正道)를 회복하기 위해 임금이 반드시 등용해야 하는 인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알아보고 이를 등용할 줄 아는 지도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②는 적절한 감상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42. 작품 속 소재에 대한 분석적 이해

[정답 ④]

이 글에 제시된 ㉠‘조서’의 내용 중 ‘염왕’이 ‘박생’에게 신이 한 능력을 기르는 방법을 전수해 주는 내용은 찾을 수 없으므로 ④는 ㉠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① ㉠‘조서’의 내용에 ‘동쪽 나라의 박아무개는 정직하고 사심이 없고,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남을 포용하는 자질을 갖추었고,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쳐 줄 재주를 가졌도다. 생전에 비록 현달하여 영화를 누리지는 못하였지만 죽은 뒤에는 기강을 바로잡을 것이로다.’라고 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② ㉠‘조서’의 내용에 ‘모든 백성이 길이 믿고 의지할 사람이 그대가 아니고 누구겠는가?’라고 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조서’의 내용에 ‘마땅히 덕으로 인도하고 예를 다스려 백성들을 착한 길로 이끌고, 몸소 실천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세상을 태평하게 해 주요. ~ 그대는 삼가 받들지어다.’라고 한 부분에서 드러나는 내용이다.

⑤ ‘임금은 한참 동안 묵묵히 있다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 “그대의 말이 옳소.” / 잔치를 마친 후 임금이 박생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손수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고전시가

[43~45] 작품 해제

정철, 「관동별곡」

이 작품은 조선 선조 때의 문인이자 정치가인 송강 정철의 대표작으로, 관동 지방의 절경을 유람하고 그 느낌을 노래한 서정적인 기행 가사이다. 3·4조 4음보 율격으로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는 표현이 많고, 다양한 수사법과 감정 이입 등을 사용하여 사실적이면서도 실감나게 묘사하였다. 제시된 부분에서는 만폭동 폭포의 장관과 금강대의 선학, 진혈대에서의 조망과 망고대·혈망봉의 장관, 개심대에서 비로봉을 바라본 감회 등을 노래하고 있다.

43. 세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이해

정답 ②

[B]는 현대어로 ‘금강대 맨 위층에 선학이 새끼 치니 춘풍 옥저 소리에 첫 잠을 깨었는가 흰 저고리 검은 치마로 단장한 학이 공중에 솟아 뜨니, 서호의 옛 주인 임포를 반기듯 나를 반겨 넘나들며 노는 듯하구나.’와 같이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B]는 시적 화자가 ‘금강대’ 맨 위층에 학이 새끼를 치고 그 학이 자신을 알아보고 반가워 나는 장면을 보며 물아일체의 경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②에서는 화자 자신이 직접 ‘금강대’에 올라 ‘쇼향노’와 ‘대향노’를 읊어보며 흥취에 젖었다고 이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형장(行裝)을 다 썰티고 석경(石逕)의 막대 디퍼 백천동(百千洞) 겨터 두고 만폭동(萬瀑洞) 드러가니’(행장을 간편히 하고 돌길에 지팡이를 짚고 백천동을 지나 만폭동 계곡으로 들어가니)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 ③ ‘호의현상(縞衣玄裳)이 반공(半空)의 소소 뜨니 서호(西湖) 넷 주인(主人)을 반겨서 넘노는 듯’(흰 저고리 검은 치마로 단장한 학이 공중에 솟아 뜨니, 서호의 옛 주인 임포를 반기듯 나를 반겨 넘나들며 노는 듯하구나) 부분에서 화자는 학이 자신을 반긴다고 여기며 자연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어와 조화옹(造化翁)이 헌스토 헌스홀샤’(아아, 조물주의 숨씨가 야단스럽기도 야단스럽구나) 부분에서 화자가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에 조물주의 숨씨가 뛰어나다며 감탄하고 있다.
- ⑤ ‘진혈디(眞歇臺) 고터 올라’ 부분과 ‘기심디(開心臺) 고터 올라’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적절하게 이해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44. 자료를 활용한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⑤

[B]에서는 ‘호의현상(縞衣玄裳)’(흰 저고리 검은 치마로 단장한 학)에서 색채 이미지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지만, [D]에서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 또한 <보기>에서 신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대상의 본질적 특성을 보여 줄 만한 것을 살리고 외적인 형상에 대한 세세한 묘사는 생략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⑤에서는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나타냄으로써 화자의 감흥을 선명하게 부각하는 효과를 말하고 있으므로, ⑤는 적절한 감상이라고 볼 수 없다.

- ① [A]에서는 폭포의 외적인 형상에 대한 세세한 묘사보다는 대상과 만날 때 일어나는 신령스러운 마음의 작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감상 내용이다.
- ② [B]에서는 봄바람을 옥피리 소리에 비유하고, 그 소리에 잠이 깬 학이 화자를 보고 반가워한다고 표현함으로써 화자의 신정과 물아일체의 감흥을 잘 표현하였다. 따라서 적절한 감상이다.
- ③ [D]의 ‘뭉거든 조터 마나 조커든 뭉디 마나’는 산봉우리에

맺힌 기운이 맑기도 하면서 깨끗하다는 것으로 대상의 본질적 특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45. 작품 속 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 ③

㉠을 현대어로 풀이하면 ‘높을시고 망고대(望高臺) 외롭구나 혈망봉(穴望峰)이 하늘에 치밀어 무슨 일을 사뢰고자 천만년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느냐’가 된다. 따라서 ㉠에서 화자는 ‘망고디’와 ‘혈망봉’을 통해 높은 의지와 고고한 절개를 가지고 임금에게 충언을 할 수 있는 신하의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에 대해 ‘화자는 자연물의 모습으로부터 자신이 지키며 살아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떠올리고 있군.’이라고 이해한 ③은 적절한 내용이다.